

‘중국식 민주’의 역사적 형성과 의미: ‘사회주의민주’의 수용과 왜곡 사이에서*

이 홍 규**

요약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의 국가정체성으로 형성된 ‘중국식 민주’의 목표는 ‘사회주의민주’의 실현이다. ‘사회주의민주’는 본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중국 사회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사회주의 체제 틀 내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세력은 ‘사회주의민주’ 주장을 통해 급속한 민주화를 요구하고 서구민주주의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민주’를 수용했지만 중국의 특수한 상황 논리와 공산당 일당 체제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삼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로 변용시켰고 이 개념은 결국 ‘중국식 민주’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중국 내 사회세력의 ‘사회주의민주’ 요구를 왜곡한 셈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세계적 위기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 공산당의 자신감 증대 그리고 시진핑 집권 이후의 정치적 보수화 속에서 ‘중국식 민주’라는 국가정체성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중국, 국가정체성, 중국식 민주, 사회주의민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142).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동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조교수

I. 문제제기

2011년 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여론조사센터가 7개 도시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평범한 중국인들의 민주주의 인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다(環球輿情調查中心 2011).¹⁾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7.2%가 ‘민주주는 좋은 것(民主是个好东西)’이라는데 동의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했다. ‘민주가 대세’라는 데도 응답자의 77.2%가 동의했던 반면 반대 응답은 12.0% 이었다. 이는 중국 대중의 정서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이를 필연적 흐름으로 간주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중국에서 일당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도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민주주는 좋은 것’이라는 담론은 후진타오(胡錦濤) 집권기였던 2006년 후진타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위커핑(俞可平)이 제시한 바 있었고²⁾ 후진타오나 원자바오 등 당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도 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³⁾ 또한 중국 당국이 처음으로 백서의 형태로 중국의 민주 이념과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명확히 표명했다는 <중국 민주정치 건설(中国的民主政治建设)> 백서에 의하면,

-
- 1) 이 여론조사는 2011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화조사의 방식으로 중국 내지의 7개 권역 즉 화베이(华北), 화둥(华东), 화남(华南), 화중(华中), 시남(西南), 시베이(西北), 동베이(东北) 등의 대표 도시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창사(长沙), 청두(成都), 시안(西安), 선양(沈阳) 등 7개 도시에서 이루어졌다. 이 여론조사는 95%의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pm 3.09\%$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 2) 위커핑은 “민주주의가 정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말해 민주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낸 가장 좋은 정치제도” 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다(閻健 2006, 前言 2).
 - 3) 후진타오도 국가주석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2006년 말에 “민주주의가 없으면 현대화도 없다”고 발언했다고 알려졌으며 2011년 유럽을 방문했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중국에서 자유와 진정한 민주를 실현할 것이며 미래의 중국은 민주법치와 공평정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중국의 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郭立青 2007; 연합뉴스 2011/06/28).

중국 공산당 스스로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민주정치 체제 건설에 매진해왔다고 자부해왔다(国务院新闻办公室 2005).

그렇다면 여기서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이 강력히 제기된다. 이렇게 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표명해온 중국 당국이 중국 내 민주화 운동을 반대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왜 2010년에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반대하고 2011년에 이른바 ‘재스민 혁명’ 활동가들을 구금하였을까? 민주주의를 가장 좋은 정치제도라고 본 중국 당국은 어째서 2012년 천광청(陳光誠)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2013년 인터넷과 웨이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상호모순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석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답은 한 마디로 중국에 맞는 민주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상술했던 이러한 민주화 운동들은 오히려 중국의 민주 체제 건설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이다. <중국 민주정치 건설(中国的民主政治建设)> 백서에서 보면, 중국 당국은 민주란 좋은 것이지만 민주 모델은 내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각국의 민주모델은 서로 다르므로⁴⁾ 결국 민주도 중국의 것이 좋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중국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房宁 2007; 2009a).

이와 관련하여 상술한 여론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또 하나 발견된다. 당시 응답자의 근 8할에 해당하는 77.3%가 민주제도는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며 미국식 민주주의는 단지 하나의 모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오직 10.6%만이 민주모델은 다양한 모델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아 미국식 즉 서방의 민주를 민주제도의 유일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

4) 여기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민주란 인류정치문명 발전의 성과이며 또한 세계 각국 인민의 보편적 요구이다. 각국의 민주란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이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중략) 국정(国情)의 차이에 따라 각국 인민이 민주를 쟁취하고 발전시키는 경로도 다른 것이다.”(国务院新闻办公室 2005)

을 뿐이다. 더욱이 응답자의 64.8%는 중국이 굴기하는 과정에서 중국만의 국가상황에 맞게 서방의 민주모델과는 다른 모델 즉 중국식 민주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민주모델은 다양하며 중국식 민주모델도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의 비율은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环球舆情调查中心 2011). 이는 중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민주”는 좋은 것”이라는 위커핑의 주장에 빗대어서 “중국식 민주도 좋은 것(中国民主也是个好东西)”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은 한편은 보편적 의미에서 민주 모델은 다양할 수 있으며 ‘서방식 민주’도 하나의 민주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식 민주’ 역시 하나의 민주 모델로서 좋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高民政 2013).

물론 이러한 중국 내 여론조사 자체가 공정성이 결핍되어 있다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도 존재한다(爱思想网 2015/12/10).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반적으로는 오늘날 중국인들의 심중에 있는 중국 정치체제의 정체성이 ‘중국식 민주’라는 개념으로 집약되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정체성’이란 국민 즉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 국가의 ‘국민임’(nationhood)을 자각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기 인식이라고 정의한다면(Berry 1997), ‘중국식 민주’란 오늘날 중국 국민이 자국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국가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식 민주’란 정치적 국가정체성은 언제부터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리하여 오늘날 운위되는 ‘중국식 민주’란 어떤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결론적으로 ‘중국식 민주’ 인식의 형성은 현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데 어떤 함의를 주는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국식 민주’는 실현가능한가?

5)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행정학원의 마바오청(马宝成) 교수는 ‘중국식 민주’가 이미 중국 사회가 지향할 정치적 목표가 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马宝成 2016).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차례로 증명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날 중국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중국식 민주’의 본질은 ‘사회주의민주’인데 사실 이 ‘사회주의민주’란 본래 중국 사회세력의 지속적인 요구였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주의민주’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해 수용되었지만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라는 제한적 의미의 개념으로 변용되었고 이는 다시 ‘중국식 민주’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셋째 그러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나 ‘중국식 민주’ 등 이러한 개념들은 또한 사회세력들이 주장해온 ‘사회주의민주’를 왜곡한 셈이기도 하다. 넷째, 다만 분명한 것은 ‘중국식 민주’가 민주주의의 세계적 위기 속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체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시진핑 집권 이후 정치적 보수화 속에서 중국 정치체제의 정체성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실 중국정치 연구에서 ‘중국식 민주’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중국식 발전모델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하지만 ‘중국식 민주’가 ‘사회주의민주’라는 중국 사회세력의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했으나 동시에 왜곡한 것이라는 논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점은 본고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논증을 핵심으로 하는 본 연구는 우선 오늘날 운위되는 ‘중국식 민주’ 개념의 간단한 정의를 먼저 소개한다. 이후 정치적 정체성으로서 ‘중국식 민주’가 중국에서 어떠한 역사적 경로로 형성된 것인지 그 동태적 과정을 실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과 비판을 통해 ‘중국식 민주’ 인식 형성의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파악하고 ‘중국식 민주’의 실현 가능성을 간단히 전망하고자 한다.

II. ‘중국식 민주’의 정의

‘중국식 민주(中国式民主: Chinese style democracy)’란 단순한 형식 논리로 보면 ‘중국식 스타일로 구현되는 민주’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주 의 핵심적 본질은 고유하지만 민주를 구현하는 형태 즉 정치체제 모형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중국은 민주를 중국식 스타일로 구현하는 정치체제 모형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신봉되는 서방의 민주도 하나의 제도 형태이지 그 자체가 무결점의 민주모델이 아닌 만큼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은 서방식 민주가 아니라 중국에 적합한 중국식 민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⁶⁾

그렇다면 이념적으로 ‘중국식 민주’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 관방의 표현을 종합한다면, ‘중국식 민주’란 한마디로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专政)’ 원리에 기초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를 의미한다(辛识平 2014). 이러한 내용을 분해하여 해석해보자.

우선, ‘인민민주독재’ 원리란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민주독재’의 중국적 실현 형태로 해석된다(王伟光 2014). 본래 ‘무산계급민주독재’는 무산계급에게는 민주를, 자산계급에게는 독재를 실행한다는 레닌주의적 명제로 이는 무산계급민주이자 무산계급독재인 체제 원리를

6) 중국 당국은 이러한 차원에서 민주를 현대사회 정치문명의 중요한 지표이나 민주에 대한 인식에서 많은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가 단지 1인1표의 선거제도라고 인식하거나 민주를 서방의 것이어서 서방처럼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서방의 민주제도를 모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제도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신봉해마지않는 서방의 민주 제도에도 금권정치, 파벌투쟁, 정책 효율의 저하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에 대한 인식도 천차만별이고 이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존재해왔다고 설명한다. 민주の本질이 중요한 것이지만 민주제도의 차이에서 엇배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식이든 서구식이든 민주の本質은 민중의 의견이 정부와 소통되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며 민주는 민중의 실질과는 동등하지 않다고 본다(人民网·理论频道 2016/08/19).

말한다.⁷⁾ 단, 중국혁명의 경우 신민주주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으므로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등 무산계급 뿐 아니라 자산계급(부르주아)인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을 포함시켜 ‘인민’이라 칭하고 인민 내부에는 민주를, 인민의 적에게는 독재를 실행한다는 ‘인민민주독재’ 원리로 확대한 것이었다(中共中央文献编辑委员会 1991, 1475-1477).⁸⁾ 따라서 인민민주독재의 원리는 한편으로는 본래부터 연합정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민의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한 폭력적 통치도 포함하는 것이었다.⁹⁾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되었다고 본 이후에는 잔존했던 자산계급도 무산계급으로 전환됐다고 간주되어 ‘인민’은 ‘무산계급화’된 대중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1966년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의 결정이후부터는 아예 ‘무산계급독재’가 주창되기도 했다.¹⁰⁾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인민’은 계급성을 뛰어넘어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국민을 총칭하는 것이 되었으므로¹¹⁾, 인민민주독재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 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중국의 사회주

7) 레닌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혁명이 승리한 후 출현한 과도기의 국가를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새로운 형의 민주국가이자 (부르주아에 대한) 새로운 형의 독재국가라고 규정하였다. 즉 부르주아에게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금지하고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반면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제도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독재이자 프롤레타리아민주라고 규정한 것이다(레닌 1988, 49-51).

8) 즉 ‘인민민주독재’의 원리란 본래 ‘인민의 적’으로 규정된 지주계급과 독점자본가(대자본가)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행하지만 계급연합체의 성격을 갖는 ‘인민’ 내에서는 민주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9) 더욱이 사회주의 개조 선언 이후, ‘인민’ 내부에서도 소자산계급 중 일부 잔존하는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치열한 계급투쟁을 강조함으로써 ‘인민민주독재’ 원리는 사실상 인민민주보다는 내용적으로 무산계급독재를 강조하는 좌경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中共中央毛泽东主席著作编辑出版委员会 1977, 363-375).

10) 문화대혁명의 공식 명칭이 무산계급문화대혁명으로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무산계급독재가 관철되는 계속혁명으로 보았다.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2014, 114-116)

11) 즉 개혁개방 이후부터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찬성, 옹호하는 계급, 계층과 사회집단’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하게 된다(词典编词组 1985, 9).

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임을 의미하게 되었다.¹²⁾ 시진핑 집권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오늘날 인민민주독재에서 인민은 노동자, 농민 뿐 아니라 조국과 사회주의사업을 열렬히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며 인민민주독재는 인민들이 사회주의법제의 틀과 공산당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¹³⁾

그렇다면 ‘사회주의민주(社会主义民主)’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민주’는 인민민주독재의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민주주의의 보편적 특징 즉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구현하는 것이다(丁维陵 1990, 18-19). 예컨대 1980년대 중국에서 출판된 정치학 사전에 기술된 개념도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사회주의민주’는 인민민주독재를 구현하는 것으로 인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를 관리하고 민주자유 권리를 행사하며 이는 법률적, 물질적으로 보장된다고 규정된다. 또한 ‘사회주의민주’는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주의시기에 시행되는 민주주의이므로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보다 더 우월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민주’는 ‘자본주의민주’와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¹⁴⁾ 오늘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

12) 1987년 2월 공산당 기관지 홍기(红旗)가 ‘인민민주독재’를 규정한 이러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홍기의 “인민민주독재를 견지하자”는 글을 보면 “..우리가 인민민주독재를 행사하는 것은 곧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형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다(本刊评论员 1987, 8-9).

13) 공산당 기관지 치우스(求是)에 따르면, 인민민주독재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계급을 영도계급으로 하고 노동자계급의 선봉대인 중국공산당을 영도핵심으로 한다. 둘째, 마르크스주의와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를 인민민주독재의 이론적 기반과 사상 지침으로 삼는다. 셋째,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동맹을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는다. 넷째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사업을 열렬히 사랑하는 모든 사회주의 건설자들을 동맹으로 삼는다. 다섯째, 소수의 적에게 독재(专政)를 실행하고 대다수 인민대중에게는 광범위한 인민민주를 실행한다. 여섯째, 사회주의법제를 통해서 민주와 독재를 실시한다(王伟光 2014).

14)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민주’는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 시기의 과도적 역사적 단계에서 무산계급과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국가제도이다. 전체인민이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 하에서 평등하게 국가사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중략). 인민은 인신, 언론, 출판, 집회, 신앙 등의 자유 권리를 향유하고 법률

회주의민주’ 개념도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¹⁵⁾ 결국 ‘사회주의민주’는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사회주의시기에 인민민주독재(혹은 무산계급민주독재)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의미한다.¹⁶⁾ 따라서 단순히 말하자면 ‘사회주의민주’란 사회주의 국가의 법적 제도적 틀 내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는 무엇인가? ‘중국 특색’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로 표현되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란 단순히 말해서 ‘사회주의민주’와 중국의 현실 즉 국가상황(国情)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을 영도하여 오랫동안 분투하고 고생스럽게 노력하여 얻어진 것으로 그것은 민주 발전의 일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중략). 그것은 무산계급의 영도 하에 인민대중이 착취계급의 통치제도를 무너뜨려 쟁취해 낸 것이다. (중략) 사회주의민주주의는 대다수인의 민주이며 아울러 법률과 물질적 보증이 있는 실질적인 민주이다. 그것은 자산계급의 민주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인류 역사상 최고 유형의 민주이다.”(词典编词组 1985, 346).

- 15) 오늘날 중국 당국이 규정한 ‘사회주의민주’ 개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민주에서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며 광대한 인민군중은 국가사무를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무산계급정당과 사회주의국가의 각급 간부에 대해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민주의 인민에 대한 민주와 적에 대한 독재의 변증법적 통일을 구현한다. 셋째, 사회주의민주의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각 민족 인민이 모두 평등하게 광범위한 민주자유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법률적 물질적 보장을 향유한다. 넷째, 사회주의민주의 민주 기반하의 집중과 집중 기반하의 민주를 실행하고 인민은 광범위한 민주와 자유를 향유할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주의 기율과 법제를 준수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주의민주의 절대다수인의 민주로서 소수인이 다수인을 압박하는 자산계급 민주와 구별되며 무정부주의와도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여섯째, 사회주의민주의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의 분업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는 모두 무산계급 정당의 영도 하에서 상호 업무를 협력하는 것으로서 자산계급 국가의 “삼권분립” 제도와는 다르다. 일곱째, 사회주의민주의 군중의 자아 교육 방법이다. 여덟째, 사회주의민주의 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합작제를 실행하고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실행한다(人民网党史百科, <http://dangshi.people.com.cn/GB/165617/166499/9981540.html>).
- 16) 여기서 ‘무산계급민주독재’ 원리는 무산계급의 국가정권임을 의미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적 국가형식을 채택하는데 유리한 원리가 된다는 것이다(丁维陵 1990, 18).

법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중국적 특색이 선명하다는 것이다(秋石 2010).¹⁷⁾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적 자장 속에서 만들어진 민주 개념을 ‘사회주의민주(社会主义民主)’라고 한다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등의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사회주의민주를 중국의 혁명과 국가건설의 실천과 결합시키며 만들어진 것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라는 것이다(人民网 2017/03/27).

여기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의 핵심은 공산당의 영도(党的领导), 인민주권(人民当家作主),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国)의 유기적 통일이라고 해석된다(中国社会科学院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系研究中心 2014, 34-36).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고 다민족이며 발전이 불균형적인 동방의 대국에는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정치제도에서 당의 영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인민주권의 원리는 사회주의민주정치의 본질이자 핵심으로 당의 영도 하에서 국가의 주인으로 민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 의한 통치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업무를 엄격히 처리하며 사회주의민주를 제도화 법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 인민주권, 법에 의한 통치의 3요소의 통일(三统一)은 개혁 개방 이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 정치발전의 핵심으로 ‘서구식 민주주의’의 ‘3권 분립’과 대비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는 것이다(房宁 2009b, 19-21).

종합하면 ‘중국식 민주’가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专政)’ 원리에 기초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는 중국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공산당의 영도라는 조건 하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17) 예컨대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혁명의 구체적인 실천을 결합시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그리고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집어 노동자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인민민주독재 국가를 창건했다는 것이다.

을 의미한다. 즉 중국 당국이 주창하고 중국 내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중국식 민주’란 사회주의 일당제 하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Ⅲ. 개혁개방 이후 ‘중국식 민주’ 인식의 역사적 형성

앞서서 본 것처럼, 중국 당국이 주창하는 ‘중국식 민주’의 본질적 내용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라고 한다면 이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까? 본고는 이 개념의 역사적 형성 과정 분석을 통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론이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주장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는 사회세력의 급진적인 ‘사회주의민주(社会主义民主)’ 요구를 중국 당국이 굴절 반영하여 제시한 것이다. 즉, ‘사회주의민주’란 본 중국 사회세력의 지속적인 요구였고 이는 개혁개방 이후 특히 천안문 사건 이후 굴절 반영되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론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세력의 ‘사회주의민주’ 주장을 중국 당국이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회세력의 ‘사회주의민주 요구’를 왜곡한 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를 내용으로 하는 ‘중국식 민주’는 전반적으로 오늘날 중국인들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정치적 퇴행을 가져오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에 따른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중국 내에 형성되고 정치적 보수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1. 사회세력의 급진적 ‘사회주의민주’ 요구와 ‘사회주의초급민주’론

중국에서 ‘사회주의민주’ 요구 즉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 실현 요구

는 중국 당국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세력의 요구였고 이는 개혁개방 이전 마오쩌둥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요구였다.¹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사회주의민주’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처음 대대적으로 전개된 것은 1957년 ‘쌍백(双百)운동’ 때로, 1957년 5월 공산당 정풍운동의 일환으로 쌍백운동이 본격화되자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라 할 청년들이 꺾기하여 공산당 일당 주도의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당 내외에 ‘사회주의민주’의 도입 등 사회주의 하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다.¹⁹⁾ 1966년-1976년의 문화대혁명 과정에서도 공산당 일당 체제가 아닌 대중의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들이 적지 않게 제시되었다.²⁰⁾ 문화대혁명 초기에 나타난 이러한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의 민주주의 요구들에 이어 문화대혁명 말기에는 사회주의민주 실현을 위한 법제화가 공개적으로 주장되기도 했고²¹⁾ 더욱 구체적으로 사회주의민주 실현을 위한 제도로써 ‘사회주의 양당제’ 주장이 제시되는 등

-
- 18) 개혁개방 이전 사회세력의 급진적 ‘사회주의민주’ 요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흥규(2014)를 참조하라.
- 19) 청년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선진적인 사회이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사회주의 공유제에 부합되는 상부구조(정치체제)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6-57년에 등장한 중국 내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첸리첸(2012)과 벤톤 등(1995, 85-103)을 참조하라.
- 20) 예컨대, 문화대혁명 초기 후난성(湖南省)의 학생 홍위병이었던 양시광(杨曦光)은 여전히 당 간부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문화대혁명의 모든 권력을 조반파(造反派)인 대중에게 귀속시키고 선거를 통하여 진정한 ‘파리코민’ 정권을 건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舊관료들이 새로운 권력기구에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심지어 당시의 중국 공산당을 재평가하여 ‘진정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杨曦光 1968).
- 21) 문화대혁명의 말기인 1974년 대자보를 통해 왕시저(王希哲), 구어홍즈(郭鸿志), 천이양(陈一阳), 리정티엔(李正天) 등은 리이저(李一哲)라는 공동의 필명으로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에 관하여(关于社会主义的民主与法制)’라는 제하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이 글에서 중국 사회주의 하에서 공산당 간부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귀족으로 등장하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문화대혁명으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실현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李一哲 1974).

‘사회주의민주’의 제도화가 직접적으로 요구되었다.²²⁾

1976년 초 천안문에서 발생한 4.5 민주화 운동은 문화대혁명의 종결을 요구하면서 ‘사회주의민주’의 실현을 주장한 운동이었다. 시위 참여자들은 마오쩌둥의 일인 독재체제를 비판하면서 당시 서구나 동유럽에서 유행했던 것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정하여 민주적 사회주의 이념으로 재구성하려고 했다(Goldman 1994, 10). 4.5 민주화 운동은 당시 중국에 직접적으로 사상해방운동을 야기하는 단초가 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타난 1978-1979년의 ‘민주의 벽’ 운동은 4.5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 것이었다.

‘민주의 벽’ 운동에 호응하여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도 ‘사회주의민주’ 실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예컨대 덩샤오핑은 후야오방에게 1979년 5.4운동 60주년 되는 날에 맞춰 사회주의민주 실천에 대해 논술한 긴 문장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다(에즈라 보겔 2014, 356).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사회주의민주’의 실천을 현대화의 기반으로 본 것이다. 다만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적대세력에 대한 무산계급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현대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민주화 역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에즈라 보겔 2014, 360).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중국이 견지해야 할 4항 기본원칙의 천명 즉 사회주의 노선, 무산계급독재, 공산당의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견지를 선언한 것이다.

개혁개방을 선언한 직후 중국 공산당 개혁파 지도부는 개혁 이전의 과거사에 대한 재평가 과정에서 사회주의에서도 민주 실현이 핵심 목

22) 문화대혁명이 거의 종료될 즈음 등장한 윈난성(云南省)의 홍위병 출신인 천얼진(陈尔晋)도 ‘특권론(特权论)’이란 문건을 작성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됨으로써 중국사회주의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사회주의 양당제의 실시를 주장하였다(陈尔晋, 1974-1976年初).

표임을 표명하였다.²³⁾ 즉, 중국은 건국 후 30년 동안 스스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현실화시키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착오를 지적하는 것이다. 즉, 근대 이후 세계사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자본주의의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 역사발전의 산물로 이해하며 사회주의 체제 역시 이러한 보편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자는 인식이다(刘河人·孙连成 1988, 60). 개혁파 지도부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제도를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하며, 이러한 제도 건전성의 지표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발전 수준이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제도는 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민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迟福林, 黄海 1987, 306).²⁴⁾ 이는 사회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기존의 레닌주의적 해석 즉 민주주의에 대한 계급적 관점보다는 통치방식에서의 민주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무엇보다도 과거의 중국 사회주의의 통치 형태와 방식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된다. 중국의 개혁파 지도부는 과거 중국 사회주의체제에서 권력의 독점화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통치방식에서의 독재 형태가 출현했다고 비판

23) 이러한 인식은 이른바 <역사결의> 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고도의 민주적 정치제도를 사회주의 근본 목표와 임무로 규정한다는 것은 중대한 이론적 의의와 현실적 의의가 있다. 과거의 인식은 민주가 수단이고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이해는 편파적인 것이다. 민주는 상부구조로서 결국은 경제적 토대에 봉사한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가 어떤 상황에서나 어떠한 의미에서도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는 인민대중이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쟁취해야 할 목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이 철저한 해방을 얻기 위한 근본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中国共产党新闻网, <http://cpc.people.com.cn/GB/64162/71380/71387/71588/4854598.html>)

24) 덩샤오핑은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을 주창하면서 사회주의현대화가 경제적으로도 선진 자본주의국가를 따라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자본주의국가보다 더 민주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덩샤오핑은 또한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주의란 상상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현대화는 더욱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中共中央文献委员会 1994a, 168, 322).

한 바 있다.²⁵⁾

그러자 일부에서는 ‘사회주의민주’의 핵심 개념으로 당이 간주하던 ‘무산계급독재’나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까지 전개되었다. 80년 중국의 저명한 당 이데올로그였던 랴오가이룽(廖盖隆)은 레닌이 주창한 ‘무산계급독재’가 민주적 통치방식을 경시함으로써 ‘철의 독재’로 전화되었고 결국 ‘무산계급독재’란 소수자 혹은 1인의 독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廖盖隆 1981, 98). ‘민주집중제’가 “토론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표면상 다분히 모순적인 지도자책임제(一長制)와 다수인의 민주적 정신을 실제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당시의 일반적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가 대두되었다(陈延政 1982). 중국사회과학원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맑스주의 철학자였던 수샤오즈(苏绍智)는 스탈린이 제시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전 인민의 이익은 일치한다’는 일원론적 관점이 이익의 다원화가 필연적인 현실에 맞지 않는 무용화된 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민주화란 차별적인 의견의 자유토론을 허락하고 단일한 영도체제를 반대하는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大公报 1986/09/18). 8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중국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제기되었고 사회주의의 핵심이 민주적 인도주의라고 파악하여 인간 활동의 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주의의 본질로 파악한다

25) 덩샤오핑은 특히 관료주의 현상, 권력의 과도한 집중, 가부장제 작풍, 간부 직위의 종신제 현상 및 각종 특권 현상들을 열거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각종 폐단의 총체적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권력의 분산, 당정분리, 권력 승계의 합리화 등을 주장한다(中共中央文献委员会 1994a, 320-343). 덩샤오핑은 이후 정치개혁의 3대 목표로서 간부의 연소화를 통한 당과 국가의 활성화, 기구팽창 및 인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료주의의 극복,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계층과 지식인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통한 권력의 하방 등을 제시하고 정치개혁의 적극 실시를 주장하게 된다(编写组 1987, 109-110). 80년대 중국의 정치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郑谦 外1988).

든지 직접적으로 사회주의의 핵심이 인도주의라고 규정하고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사회주의의 본질로 등치시키는 관점 등도 공식 등장하게 된다(光明日报 1988/11/21).

이미 중국의 청년층들은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주의민주’ 개념은 단순히 무산계급 독재나 공산당의 영도 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本社 1984, 197-203).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를 확산시키고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실제로 점차 당시 베이징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학생들은 서구적인 민주주의를 숭배하는 경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수용하는 상호모순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²⁶⁾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신념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평가도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것이다.²⁷⁾ 기존 사회주의 하에서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주의와 비교할 자격이 없을 만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王茂华 1991, 75-76).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생한 천안문 민주화 운동은 참여 대중의 대다수가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부정한 것이 아니었

26) 당시 베이징대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서 응답자의 79.3%가 미국을 택했고, 이밖에 프랑스, 영국, 유고, 리비아, 일본, 중국 순으로 민주적이라고 평했다. 반면에 베이징대 학생들은 민주주의에 계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8.2%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민주주의란 다당제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의 77%가 반대한다는 태도를 보였다(王福春, 呈晓健 1989, 27-28).

27) 1979년,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푸단대(復旦大)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응답자의 1/3만이 사회주의를 신뢰할 뿐, 1/4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었고 1/4은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중국의 가장 큰 문제로 응답자의 55%가 ‘중국 공산당 간부의 특권’이라고 대답했다(Time 1980/11/10, 49).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국 인민 각 계층의 평가 역시 각 계층 별로 2/3 정도가 공산당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闵琦 1989, 125).

지만²⁸⁾ 급속한 민주화를 요구하고 서구민주주의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의 특징을 띠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최고 권력자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체제의 민주화라는 기본 목표는 지지했지만 다당제, 삼권분립 등 서구 민주주의의 주요 제도들은 자본주의 제도라고 규정하고 그 도입을 반대해왔다(中共中央文献委员会 1994a, 256; 中共中央文献委员会 1994b, 267, 307). 이는 중국 당국이 상정하는 '사회주의민주'란 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성을 최고 권력자가 명확히 해왔던 것이다.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을 제외한 다른 개혁파 지도부는 사회주의 하에서 점진적인 민주화의 길을 제시하되 서구민주주의 원리와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명된 독재(Enlightened Autocrat)’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Nathan 1990, 176). 그러나 당시 중국의 최고 권력자들 그 외의 개혁파 지도부든 이들이 민주화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 있는 중국에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일종의 환상이라고 보고, 중국 사회주의 내에 민주주의 실현을 장기적인 과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당시 중국이 추진해야할 민주주의 수준은 민주화 수준이 지역적으로도 불균형적이고 제도적으로도 불완전한 ‘사회주의초급민주(社会主义初级民主)’라는 입장이었다(聂运林 1988, 34-37; 丁维陵 1990, 28-31).

28) 실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히려 국제공산주의 운동 노래인 인터내셔널가를 부를 정도로 자신들의 요구가 사회주의 정치개혁을 위한 것임을 표방했다.

2.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론의 정립과 ‘사회주의민주’ 노선의 백가쟁명

천안문 운동이 무력으로 진압되고 보수와 중심의 권력구도가 형성되자, 중국 당국은 기존의 모호함에서 벗어나 인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권리에 대한 보장 대신 중국 공산당의 지배 체제를 강화할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개인의 이해나 부분적인 이익은 집단적 이익, 장기적인 이익인 국가이익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강요되었고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공산당이라는 일원화된 권력체제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선언에서처럼 헌법에 규정된 인민의 기본권은 얼마든지 중국 공산당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이 중국 지도부에 확고해졌다.²⁹⁾ 천안문 사건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급작스런 붕괴와 불안정은 사회주의체제 내부에서 전개된 급진적인 민주화 요구가 궁극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낳는 것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대중들은 국가의 붕괴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혼란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사회주의 내부의 민주주의 운동이 사회주의를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

29) 당시 새롭게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된 장쩌민(江泽民)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 당성(黨性) 원칙을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회의를 갖는 사람이 생겼고 어떤 이들은 인민성(人民性)이 黨性보다 우위라고 주장했다. .. 黨性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의 근본 이익을 견지하는 것이며 양자는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다. 人民性이 黨性보다 우위에 있음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 당의 영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산계급 자유화의 주창자는 사실 인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 없고 인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인민의 의지에 위배하여 반대 정당을 만들고 반사회주의 여론기구를 만들어낸다. 黨性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신문이 정치적으로 당 중앙의 입장과 일치하여 선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신문, 방송에서 지금 이후로 결코 자본가계급 자유화를 위한 여론 진지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서방 국가의 ‘언론의 자유’는 실제 자본가계급의 언론 자유이며 자본가계급의 이익과 자본부의 제도를 옹호하고 복무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은 천안문 사건 종료 직후 중국 공산당이 언론의 자유와 같은 인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것이었다(江泽民 1990).

히려 사회주의의 붕괴를 야기하였으므로, 중국 내의 민주주의 논의와 운동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주의민주’가 아니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 즉 ‘사회주의민주’의 ‘중국특색’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王茂华 1993, 15).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는 천안문 사건 이후 개혁개방의 재개 및 심화 여부를 둘러싸고 중국의 체제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즉, 개혁개방의 지향점이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를 묻는 이념적 논쟁을 중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덩샤오핑의 선언은 계획과 시장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시장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길이 사회주의 중국의 유일한 활로이므로 개혁개방을 재개, 심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中共中央文献委员会 1994b, 373).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의 체제성격과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내부적으로 강제한 것이었다.

1990년대 초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근거하여 중국 지도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재개하기보다는 이를 유보하는 신권위주의 논리에 기대어 ‘先경제발전, 後정치개혁’의 담론을 구축하였다. 예컨대 중국 당국은 1992년 사회주의시장경제 선언을 통해 경제체제의 대전환을 예고한 제14차 당대회에서 서구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다시 분명히 하였다. 대신 중국 당국은 대대적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中国特色的社会主义民主)’를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江泽民 1992). 즉 중국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민주’이되 서양의 양원제, 다당제, 삼권분립과 같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제도는 절대 도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중국적 특색’을 강조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의 특수한 상황 논리와 체제의 정체성을 명분으로 삼아 중국의 민주주의 역시 중국

적 상황에 맞게 변형,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여전히 중국 당국은 장기적으로 민주화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민주화 방향이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만은 용납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내부의 급진적인 민주화 시도 역시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의 경우처럼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므로 중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적 안정을 우선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가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된 것이다.

지식인 사회 내부에서도 사회주의 내부의 급진적인 민주화 시도는 서구의 제도로 중국의 전통을 바꾸어보려 했던 ‘정치적 낭만주의’였으며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대두되었다. 사회경제적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의 중국에서 정치적 민주화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경험과 같이 정부가 강력한 권위를 신뢰하는 전통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인민에 이익이 되는 개혁을 추동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³⁰⁾ 더욱이 시장경제의 발전은 향후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시장경제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고도 보았다. 즉, 시장경제의 발전을 통해 이익이 다원화되고 개인의 자유가 성취되면 각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요구할 것이므로, 당대 중국에서 요구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강력한 권위의 확립이라고 보았다. 민주주의 제도의 급진적 도입을 요구했던 지식인들도 점차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의 유보를 주장했던 신권위주의자들의 견해에 통합되었다.³¹⁾

실제 1992년 이후 민주주의 없는 개혁의 재개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30)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 신권위주의자인 샤오공친(蕭功秦 2001)을 참조하라.

31) 지식인의 신권위주의 수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주쉬에친(朱學勤 2003)을 참조하라.

나타났다.³²⁾ 개혁의 재개와 경제적 성장의 시기를 맞아 지식인들이 이념적 가치를 논하기보다는 경제적 성취를 위해 취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고 정치개혁이나 사상 문제는 더 이상 개혁의 핵심적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지식인들의 정치적 열정은 크게 쇠퇴하였다(沙蓮香 等 2004, 78-82). 결국, 1990년대 초중반의 민주주의 논의의 중단은 중국당국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강력히 억제한 결과만이 라기보다는 중국의 지식인들 스스로가 경제발전 이념에 포섭되어 중국 사회주의 하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주창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론은 점차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서 시장화 개혁의 심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재인식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1990년대 들어 세계적인 설득력을 얻은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 추구를 명분으로 득세한 것이었으므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적 권위주의 정치에서 시장화 개혁의 본격화는 새삼 ‘보다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목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매번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 또한 역설적으로 시장화 개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점차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역시 중국에서 대중적 불만을 야기하였고 이는 중국 사회주의의 핵심가치라 할 ‘평등’ 실현을 둘러싸고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재인식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이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사회의 인식은 다양하게 분화된다. 시장경제가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시장경제 확대와 경

32) 1992년에서 1994년까지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13.7%에 이르렀다(1993년). 1991년 1350억 달러로 국민총생산의 37%를 차지했던 대외무역은 1994년 2360억 달러로 까지 증가했고, 외국의 실제 직접투자액은 1991년 44억 달러에서 1994년 330억 달러로 3년 만에 700% 성장했다. 경제성장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졌다. 1인당 국민총생산은 1995년 445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화폐 교환가치로 본 구매력으로 계산해 보면 1인당 연간 소득은 약 1500 달러에 이르렀다(마리-클레르 베르제르 2009, 405-406).

제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와 안정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 견해,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관료부패와 정경유착의 근절을 요구하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자유주의좌파와 정치적 자유주의 견해³³⁾, 경제적 민주주의 실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거나 문화대혁명의 대중민주주의 체제의 구축을 요구하는 신좌파의 견해³⁴⁾ 등이 그것이다.

반면, 90년대 후반 중국 당국은 여전히 공산당의 영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를 주창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민주’이며 이의 실현도 중국 특유의 제도의 구축과 법치를 통한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제도화를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민주의 제도화 역시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사회주의의 민주주의 실현은 경제발전이라는 우선적인 목표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³⁵⁾

200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중국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었고 그 구체적인 민주화 방향과 실현 형태에 대하여서는 더욱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예컨대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을 둘러싸고 선거민주주의론³⁶⁾, 자유민주주의론³⁷⁾, 심의민주주의

33) 이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지식인들은 자유주의 좌파로 분류될 수 있는 허청리엔(何清涟)이나 친후이(秦晖)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자인 리우쥘닝(刘军宁), 쉬여우위(徐友渔) 등으로 나누어진다.

34) 신좌파는 대체로 서방의 좌파사상 및 이론을 기반으로 평등과 공평을 핵심가치로 삼아 중국의 시장경제로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자본주의적 모순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좌파의 대표적 인물들로는 왕후이(汪晖), 리타(李陀), 왕샤오둥(王小东), 추이즈위안(崔之元), 한위하이(韩毓海), 광신니엔(旷新年) 등등을 꼽을 수 있다.

35) 예컨대 1997년 15차 당대회 문건을 보면 이러한 입장이 잘 드러난다(江泽民 1997).

36) 이러한 견해는 리판(李凡)의 견해(李凡 2009)가 대표적이다. 그밖에도 황웨이핑(黄卫平), 차이딩지엔(蔡定剑) 등이 이러한 입장에 있는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黄卫平 2000: 238-240; 蔡定剑 2002).

37) 리우쥘닝(刘军宁)이 이러한 시각의 대표적 인물인데, 리우쥘닝의 정치적 자유주의

론³⁸⁾, 엘리트민주주의론³⁹⁾, 다원적민주주의론, 민주사회주의론.⁴⁰⁾ 등으로 민주화 담론이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기도 했다.⁴¹⁾ 이처럼 2000년대 후진타오 시대는 이렇게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민주 논쟁이 불붙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⁴²⁾ 특히 ‘사회주의민주’의 실현을 주창하는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사회주의민주’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실천 구상이 존재했다(이흥규 2013). 서구민주주의를 비판하며 중국식 민주 모델을 칭송하는 親관방적이나 민족주의좌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팡닝(房宁), 개혁사회주의 입장에서 ‘삼권분립’의 원리를 당내 민주주의에 도입하자는 왕구이슈(王贵秀), 사회주의 일당제 대신 사회주의다당제를 주창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가오팡(高放), 국가사회주의 일당제를 독재로 규정하고 탈근대적인 새로운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첸리쥔(钱理群) 등 ‘사회주의민주’ 노선 자체도 백가쟁명의 상황이다. 기실, 앞서 열거한 민주화 담론 가운데에서도 자유민주주의론을 제외하고는 다른 민주화 담론은 모두 현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틀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기에 사회주의민주의 실현 방식을 둘러싼 방법론적 논쟁에 다름 아니다. 자유주의자 가운데에서도 현실적으로 ‘사회주의민주’가 중국의 민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⁴³⁾

또한 후진타오 시대는 민간에서의 활발한 민주 담론에 호응하여 ‘사

사고를 표현한 대표적 글(刘军宁 1999)을 참조하라. 이 글의 발표로 인해 리우쥔닝은 그가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에서 퇴출된다.

38) 린상리(林尚立), 캉샤오광(康晓光)등의 견해(林尚立 2003; 康晓光 2003)가 이에 속한다.

39) 이는 후웨이(胡伟 1999)이 대표적이다.

40) 세타오의 민주사회주의 주장(谢韬 2007)은 중국 지식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41) 이러한 구분은 허정커(何增科)의 구분을 차용한 것이다(何增科 2008, 81-84).

42)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지식인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논쟁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는 김재관 2009, 143-183)을 참조하라.

43) 중국의 자유주의자 가운데 ‘사회주의민주’를 현실적인 중국 민주 목표의 설정한 대표적 인물로는 쉬여우위(徐友渔), 차오쓰위안(曹思源) 등이 있다(이종화·장윤미 2012).

회주의민주'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비전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시기였다. 2005년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중국식 민주 이념과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여 이러한 목표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05) 후진타오 총서기 역시 2007년 17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민주'의 이념과 실천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빈번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사회주의 민주' 실현을 위한 정치체제개혁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新华网 2007/10/24). 중국 당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당제 대신 공산당 '당내 민주'를 실현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의제 기능 활성화, 非공산당 정치세력과의 협력체제 강화, 기층선거제도의 심화 등을 통해 '인민 민주' 즉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것임을 제시했다.

물론, 중국 지도부가 주창하는 '중국식 민주'는 '사회주의민주'를 실현하되 공산당의 영도(党的领导), 인민주권(人民当家作主),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国) 등 세 요소의 유기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 주장이다. 중국 공산당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는 여전히 급진적인 민주화가 아닌 점진적인 민주화 노선을 의미한다.⁴⁴⁾ '사회주의민주'의 다양한 논쟁이 보장된 가운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가 중국 당국이 추구하는 '중국식 민주'의 공식 목표임이 정립되어온 것이다.⁴⁵⁾

44) 원자바오총리는 당시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을 재론하면서 경제건설에 100년 동안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치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温家宝 2007).

45) 중국 당국은 이러한 경로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中国特色社会主义政治发展道路)'로 인식하고 있다(人民日报评论员 2008).

3. 서구 민주주의 모델의 위기와 ‘중국식 민주 우위’론

2000년대 이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가 중국 당국의 ‘중국식 민주’의 본질로써 확연히 정립되었음에도 ‘사회주의민주’는 다시 논쟁적인 개념으로 대두되어 왔다. 앞서 본 것처럼 ‘사회주의’와 ‘민주’의 결합이라는 이슈는 원래부터 중국 현대사에서 핵심 문제였다(백승욱 2009, 124). 특히 개혁개방이 심화될수록 ‘사회주의민주’ 문제는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중국에서 형성된 ‘사회주의민주’ 개념은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적 지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적 전통’과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인식’이 이중적으로 결합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인식’이란 기실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으므로 현실적으로 국가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보존해온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전통과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개혁개방 이후 중국 민간사회에서 형성된 ‘사회주의민주’ 개념은 사회주의의 얼굴과 자유주의의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⁴⁶⁾ 따라서 사회주의 이상에 입각한 국가통치 담론을 유포해온 중국 공산당에게 중국 민간사회의 ‘사회주의민주’ 개념은 유익하면서도 위험한 것이기도 했다.

‘사회주의민주’ 개념은 전제적 사회주의 체제를 개혁하는 정치개혁 목표로서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권력이 중국 민간사회의 ‘사회주의민주’ 개념을 무분별하게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자유주의 정치체제에서 보편화된 정치제도 예를 들면 다당제, 삼권분립, 경쟁선거, 대의제 등을 모두 수용하라는 대중적 압력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당국 입장에서는 공산당의 일당체제를 반대해온 자유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중국 사회세력

46) ‘사회주의민주’가 갖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Guo 2004).

내 ‘사회주의민주’ 주창자들하고도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사회주의민주’가 아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를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주창해온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기실 중국 내에서 서구 자유민주주의 모델의 근본적인 결함은 민족주의 성향의 좌파지식인들에게서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팡닝은 9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비판한 그의 책에서 서구자본주의의 민주주의 체제가 사실상 현대적 세습제와 유사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⁴⁷⁾ 2000년대 이후에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모델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대폭 증가하고 더욱 다양해졌다. 예컨대 그 대표적인 논자가 판웨이(潘维)와 왕샤오광(王绍光)이다. 판웨이는 민주주의는 ‘미신’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선거민주주의가 오히려 가난을 해결하지 못했고 권력의 부패나 불평등을 낳았을 뿐 아니라 파시즘 등으로 귀결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潘维 2003). 왕샤오광은 서구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사실상 귀족제나 마찬가지로 가짜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대의제 선거는 사실 금권 선거이기 때문에 빈자와 약자는 선거 출마가 용이하지 않는 상황으로 부자와 강자만이 선출되는 제도라고 봤기 때문이다(王紹光 2008). 2000년대 이후 중국에는 개혁개방 심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신좌파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입각한 서구 민주주의 역시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히 서구 자유민주주의 모델의 다양한 문제가 비판되면서 ‘중국식 민주’ 우위론이 크게 강화된 것은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체제의 결함이 드러난 상황

47) 팡닝은 서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가 인민의 선택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엘리트들이 정당을 조종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상태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낮은 투표율, 금권선거 등을 통해 권력엘리트들의 권력 세습을 합법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하였다(房宁 1995).

에서 ‘강한 국가’의 원천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의 효율성이 부각된 반면 서구 자본주의 각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역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당의 이데올로기 업무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2009년 중국 공산당 17기 4중전회는 <새로운 정세 하 당 건설 강화 개선의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加强和改进新形势下党的建设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발표하면서 “중국 특색사회주의민주와 서방 자본주의민주의 경계를 스스로 분명히 구분할 것”을 강조하였다(中国共产党新闻网 2009/09/28). 이는 중국 공산당 당원들부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시켜 중국 인민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 즉 공산당 일당제 하의 정치개혁 방안을 신봉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결국 이 시기부터 중국 내부에서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가 더 우월하다는 쪽으로 쟁점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호응하듯 중국에서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와 취약점을 분석하는 연구들 그리고 중국은 중국식의 민주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장윤미 2015, 89). 이와 함께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민주’ 우위론을 확고하게 밀고 나갔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2010년 중국 공산당의 핵심 기관지인 치우스(求是)에 실린 치우스(秋石)의 글이다. 필자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사실상 공산당 기관지의 입장을 밝힌 것인데, 이 글에서 공산당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의 우월성을 자유민주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다(秋石 2010). 우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는 인민 주권의 인민정권을 건립하여 착취 제도를 소멸시키고 모든 인민이 민주권리를 향유하는 인민민주인데 반하여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민주이며 대중은 자본에 의해 조종되는 정치적 게임에 참여할 수 없어 정

치적 무관심층으로 전락되었다고 비판된다. 또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의 대표적 제도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입법권, 감독권, 중요 인사에 대한 임면권, 핵심 결정권 등을 부여받은 최고의 권력기구로서 인민주권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 제도인 ‘삼권분립 하의 양원제’는 봉건전제주의에 반대하고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는 장점은 있지만 세력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많은 비용을 야기하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비판된다. 또한 양당 혹은 다당간 경쟁을 통해 집권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편견에 사로잡힌 정치적 패거리 사이의 소모성 정쟁을 야기하는데 비한다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는 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 협력을 도모하여 정치적 안정과 정치세력 사이의 공동 번영 그리고 중국 인민의 공공이익의 실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는 협상민주와 선거민주를 결합하여 실행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대의제 선거민주의 결합을 극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식 민주’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체계적인 저작들도 등장하였다. 예컨대 2010년 중국의 소장 학자 가오지옌(高建)과 퉁더즈(佟德志)는 ‘중국식 민주’와 관련하여 중국 내 학술잡지와 저널에 발표된 3만여 건의 문장 가운데 중국 내 대표적인 학자들의 문장 100개를 선정하여 이를 5권의 책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들은 일종의 ‘중국식 민주’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책이 ‘중국식 민주’와 관련된 이론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나머지 세 권은 ‘중국식 민주’의 구체적인 영역으로서 ‘법치민주’, ‘당내민주’, ‘협상민주’, ‘기층민주’ 등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Bing 2014, 97).⁴⁸⁾ 특히 이 저작 내의 문

48) 이 책들은 모두 텐진런민출판사(天津人民出版社)에서 발간되었는데 高建, 佟德志(编) 『中国式民主』(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10a), 高建, 佟德志(编) 『法治民主』(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10b), 高建, 佟德志(编) 『党内民主』(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10c), 高建, 佟德志(编) 『协商民主』(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10d), 高建, 佟德志(编) 『基层民主』(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10e) 등이다.

장들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식 민주’가 중국 정치사회의 핵심 요소들이 생성, 발전, 성숙된 산물인 동시에 이러한 ‘중국식 민주’ 모델은 중국 내부 구조가 지속적으로 균형 조정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립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즉, ‘중국식 민주’는 중국이라는 토양 위에서 만들어진 민주모델로 앞으로도 지속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체제의 등장으로 중국 내에서 중국식 민주 우위론의 입장은 더욱 강화되었다. 우선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한 내용을 다룬 부분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철저히 갈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단지 ‘사회주의민주정치’ 발전이라는 명제를 제시했던 2007년 17차 당대회에 비하여 ‘중국특색’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⁴⁹⁾ 시진핑 시대의 개혁 심화 과제를 망라하여 제시했던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개혁 등 ‘사회주의민주 정치제도의 건설을 강화’할 것을 독자적인 단락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중국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中国共产党新闻网 2013/11/16).

시진핑(习近平)은 2014년 9월 5일 중국 인민대표대회제도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주는 새로운 것이며 또한 좋은 것이다(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是个新事物, 也是个好事物)”라고 규정하고 비록 현 중국의 사회주의민주정치에 부족한 점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중국의 사회주의민주의 장점과 특징을 증가시키고 확대해 나간다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정치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新华网 2014/09/05). 2014년 9월 21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창립 6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도 시진핑은 ‘중국식 민주’를 강조하면서 ‘협상민주’가 ‘중국식 민주’의 대표적인 장점이

49) 이는 17차 당대회 보고와 18차 당대회 보고를 비교하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당대회 보고는 다음을 참조하라(人民网 2007/10/15日; 人民网』2012/11/18).

자 특징이라고 밝혔다(新华网 2014/09/21). 또한 시진핑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는 중국 사회의 토양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중국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중국식 민주’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美国之音(VOA) 2014/09/06).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식 민주’의 우위를 공공연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범한 중국인들은 ‘중국식 민주’의 우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中国社会科学院政治学研究所) 연구원인 장밍슈(张明澍)가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다수가 미국식 민주제도를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인이 원하는 민주는 오히려 중국 자신의 민주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중국인이 바라는 민주는 “내용이 형식에 우선하고”, “협상이 투표에 우선하며”, “덕치가 법치보다 우선하며”, “윤리가 권리에 우선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은 서구인들의 민주관(民主觀)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⁵⁰⁾

왕샤오광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대중의 77.3%가 대체로 중국을 민주적이라 보고 있으며 중국이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대중의 1.7%에 불과하다고 제시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국 대중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 비교적 잘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이 중국 정부를 민주적이라 인식한다는 것이다. 왕샤오광은 이러한 결과는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의 군중노선 실천과 같은 중국식의 ‘대표형 민주’ 제도 때문이라고 보면서 중국의 ‘대표형 민주’가 서구의 ‘대의형 민주’보다 실질적인 민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왕샤오광 2015).

50) 장밍슈의 여론조사에서 중국식 민주가 좋은지 미국식 민주가 좋은지 묻는 질문에서 중국식 민주가 미국식 민주보다 좋다는 대답은 응답자의 38.1%인데 반해서 미국식 민주가 중국식 민주보다 좋다는 대답은 8%에 불과하다. 응답자의 51.5%는 중국과 미국은 국가상황(国情)이 달라서 단순한 비교가 어렵다고 대답했다(张明澍 2013, 30).

오히려 이제는 아예 미국이 민주제를 실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미국이 중국보다 민주제 실행이 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까지 중국 사회 내부에서 거리낌 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미국은 역사가 짧고 독자적인 역사문화 전통이 없으며 이기적인 개인주의 문화만이 득세하여 선진적인 민주주의 실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3억의 인구를 가졌지만 통일된 사상이 없어 불안정하고 범죄자 중심의 초기 백인 이민자와 흑인 노예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수준 낮은 국민성이 이어져 내려온 것도 미국에서 민주주의 실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미국이 영토적으로도 분열되기 쉽고 많은 민족과 종교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고 계급 간 모습도 심각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고도 한다(牆外樓-网络热门话题追踪 2016/06/02). 한국 박근혜 정권의 국정논단과 탄핵, 미국 트럼프 정권의 탄생 등도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선거’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은 없지만 선동을 잘하여 인기를 얻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는 것이다. 오랜 지방행정 경험을 거쳐 능력을 인정받아야 최고지도자로 올라서는 중국 정치시스템이 훨씬 낫다는 주장이다(조선일보 2017/01/27).

이제 ‘중국식 민주’ 우위론이 중국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중국 사회 내에서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정체성으로 확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역사적 과정 속에 동태적으로 형성된 ‘중국식 민주’ 인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향후 ‘중국식 민주’는 실현 가능한가? 본 논문의 소결의 차원에서 ‘중국식 민주’ 인식 형성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하고 ‘중국식 민주’가 가능할지 여부를 간단히 전망하고자 한다.

IV. 소결: ‘중국식 민주’ 형성의 의미와 전망

본래 ‘사회주의민주’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의 중국식 표현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념적 자장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무산계급독재를 구현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들- 시민의 권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정기적인 다당제 선거-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의 전 영역의 민주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궁극적으로 뛰어넘는 것을 의미했다.⁵¹⁾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를 ‘무산계급(민주)독재’와 동일시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점에서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하의 노동자계급 권력인 동시에 정치적 자유와 다당제 등 민주주의의 보편적 요소를 사회주의 체제에서 구현하는 것을 의미했다.⁵²⁾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 사회세력의 상당수가 주창했던 ‘사회주의민주(社会主义民主)’ 역시 기본적으로 유사한 시각에 입각한 것이다. ‘쌍백운동’ 당시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도, 문화대혁명 당시의 급진적 사회주의자들도, 1976년 4.5운동과 1978-79년 민주의 벽 당시

51) 마르크스주의적 민주주의 사상을 연구해온 브라이언 로퍼(Brian S. Roper)에 의하면, 마르크스, 레닌, 룩셈부르크 등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이지만 가짜민주주의로 간주했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극복한 진정한 민주주의로 규정해왔다. 다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적 규칙과 절차들을 수용,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Roper 2012).

52) 이러한 관점은 만델의 관점을 참조하라(Mandel 1985). 그러나 과거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실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동일시된 ‘무산계급(민주)독재’는 사회주의국가의 관료화된 당 독재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주로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의 허구성과 제한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개혁사회주의의 등장 이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결국 당 독재와 대립되는 것으로 재해석됨으로써 이러한 경향은 현실에서도 공고화되었다. 물론 나중에는 아예 사회주의체제 자체가 무산계급에 의해 부정당하는 역설이 발생했지만 말이다.

의 참여자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참여자들,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사회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모두 주창하고 있는 이념이 ‘사회주의민주’인 것이다. ‘사회주의민주’ 주창을 통해 ‘사회주의’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결합한 정치제도 구축이 그들의 요구였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수용했던 ‘사회주의민주’는 상술했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의 보편적 특징과 다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였다. 즉, 중국 당국이 주창해온 ‘사회주의민주’는 결국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로 다원주의와 정치적 경쟁체제를 사회주의에서 수용될 수 없는 원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공산당의 일당 영구 집권 체제’를 훼손하는 것 자체를 사회주의 전복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는 따라서 ‘공산당의 영도’와 ‘인민주권’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 3자간의 유기적 통일이 구현되는 것이어야 한다.⁵³⁾

물론 중국 당국이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민주’를 수용하면서 일부 정치개혁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태도를 완고한 전제독재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주창해온 ‘사회주의민주’ 즉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를 단순한 레토릭으로 간주하는 것도 실제와 맞지 않는 평가이다. 오히려 중국 당국은 사회세력의 ‘사회주의민주’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당국의 논리로 새롭게 변용한 것이고 이는 사회세력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민주의 왜곡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회주의민주’ 실현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였고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를 독점

53) 서방식 민주가 자유민주제도로 시민(公民)이 자유롭게 투표하여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 다수당이 권력을 잡는 방식 즉 다당제 민주제도라면, 중국식 민주는 인민(人民)이 역사의 진전 과정에서 특정 정당 즉 인민을 대표하는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했던 중국공산당 권력과는 항상 충돌될 수밖에 없는 핵심 문제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 권력에 의해 변용 혹은 왜곡되어 중국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형성되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또한 중국 당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 자체도 매우 장기적인 과제임을 제시하며 급진적인 민주화가 아닌 점진적인 민주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중국의 ‘사회주의민주’는 역사발전 단계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초급민주(社会主义初级民主)’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개방 초기의 지도자든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의 지도자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 왔다.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제시하는 중국식 민주화 개혁 방안은 공산당 일당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민주적 제도화를 점진적으로 혹은 실험적으로 실시하여 수용해 가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더욱이 과거 중국 민간사회에 급진적인 사회주의민주화를 요구하는 흐름도 적지 않게 나타났지만 오늘날은 대체로 급진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세력의 목소리는 소수가 되었다.

결국, 중국은 공산당 주도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4년 후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중들에게 정치개혁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낸다하더라도 여전히 공산당 ‘당내 민주’의 제도화 정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또는 중국 공산당은 당내 민주와 함께 인민민주에 해당되는 영역, 예컨대 인민대표대회 개혁이나 정치협상회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가시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중국당국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의 문제를 비판해오면서 ‘중국식 민주’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는 바, 서방의 민주제에서 핵심 쟁점인 선거제 개혁 문제보다는 새로운 ‘중국식 민주’ 제도로 부각된 ‘협상민주’ 제도의 개혁과 확산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⁵⁴⁾ 다만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의 일인 권력이 강화

된다면 ‘중국식 민주’는 후진타오 시대에 출현했던 비교적 자유로웠던 ‘사회주의민주’ 논의도 축소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한 논리로 전락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에서 자유주의 세력은 시장화가 지속되는 한 존재할 것이므로 만약 중장기적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 노선과 ‘자유주의’ 노선 사이의 갈등은 재현될 수 있으며 그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이 ‘다원주의적 사회주의민주’ 예견대 사회주의의 다당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미래는 열려있지만 이 미래는 혼돈으로 가득할 것이다.

투 고 일: 2017년 07월 03일

심사완료일: 2017년 0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7년 08월 16일

참고문헌

- 김재관. 2009.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 민주개혁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세아연구』. 통권 136호. pp.143-183.
- 레닌, 블라드미르. 1988. 김영철 역. 『국가와 혁명』. 서울: 논장.
- 마리-클레르 베르제르. 2009. 『중국 현대사-공산당, 국가, 사회의 격동』. 서울: 심산.
- 백승욱. 2009.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민주’ 논쟁을 통해서 본 아래로부터 비판적 사상 형성의 굴곡.”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6권 3호.

54) 이희옥은 또한 서구 민주주의의 모델의 맹점이 점차 드러나며 중국의 민주주의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어 이른바 ‘협상민주’로 대표되는 새로운 ‘중국식 민주’ 논의가 대두되었다고 설명한다. ‘중국식 민주’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이희옥 2014).

- 보겔, 에즈라. 2014. 심규호·유소영 역. 『등소평 평전』. 서울: 민음사.
- 왕샤오광(王紹光). 2015. “시진핑 시기 중국의 민주주의: 과정, 방향, 전망 (习近平时期中国的民主主义: 过程, 方向, 展望)” 『성균중국연구소 석학 초청 세미나 간행물』 2015년 4월 28일.
- 이길성. 2017. “[특파원 리포트] 인기투표가 되면 망한다.” 『조선일보』. (1월 27일).
- 이종화·장윤미. 2012. “중국 정치개혁에 관한 자유주의 논의의 비교 연구.” 『중소연구』 제35권 4호. pp.99-132.
- 이흥규. 2013. “중국 내 ‘사회주의민주’ 인식과 실천 구상의 다양성 - 중국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함의.” 『중소연구』 제37권 3호. pp.127-171.
- _____. 2014.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민주주의 인식: 변화와 영향.” 『중소연구』 제38권 3호. pp.124-158.
- 이희옥. 2014. “중국식 민주주의의 진화- 협상민주주의 도입의 의미와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54집 2호. pp.207-241.
- 장윤미. 2015. “중국의 사회주의민주정치 구상 - ”인민의 복귀“.” 『국가전략』. 제21권 3호. pp. 87-124.
-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2014. 홍순도·홍광훈 역. 『중국 공산당역사-2권 (하)』. 서울: 서교출판사.
- 차대운. 2011. “원자바오 ”中, 미래 민주법치국가 될 것“.” 『연합뉴스』 (6월 28일).
- 첸리첸. 2012. 김정행·신동순·안영은 역. 『망각을 거부하라: 1957년학 연구기록』. 서울: 그린비.
- 高放(가오팡). 2006. 『中国政治体制改革的心声』. 重庆: 重庆出版社.
- 高建·佟德志(编)(가오즈·통더즈(비엔)). 2010a. 『中国式民主』.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_____. 2010b. 『法治民主』.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_____. 2010c. 『党内民主』.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_____. 2010d. 『协商民主』.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_____. 2010e. 『基层民主』.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高民政(가오민정). 2013. “中国式民主也是个好东西——由“民主是个好东西”引发的几点思考.” 『探索与争鸣』 2013年11期.
- 郭立青(귀리칭). 2007. “智囊建立合法性新论述背後” 『亞洲週刊』 21卷2期 (2007-01-14)
- 国务院新闻办公室(구오우옌신원반공스). 2005. “中国的民主政治建设 (全文)”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2005年10月19日.
- 聂运林(니에원린). 1988. 『中国社会主义民主制度的发展和现状』. 石家庄: 河北人民出版社.
- 丁维陵(主編)(딩웨이링(주비안)). 1990. 『当代社会主义民主研究』. 长春: 吉林人民出版社.
- 廖蓋隆(랴오카이룽). 1981. “歷史的經驗和我們的發展道德.” 『匪政月報』 第24卷3期.
- 人民日报评论员(런민르바오핑룬위안). 2008. “坚持社会主义政治制度自我完善和发展”
http://www.npc.gov.cn/npc/xinwen/szyw/zhbd/2008-03/03/content_1402801.htm
(검색일 2016. 5. 6)
- 李一哲(리이저). 1974. “关于社会主义的民主与法制——献给毛主席和四届人大.”
<http://www.ukcdp.co.uk/wangxizhe/wang3.htm> (검색일: 2016. 10. 1)
- 刘军宁(리우쥘닝). 1999. “驯化统治者” 『南方周末』. 1999年12月29日.
- 刘河人·孙连成(主編)(리우허런·순리엔청(주비안)). 1988. 『政治体制改革的基本思想』. 北京: 光明日报出版社.
- 李凡(리판). 2009. “中国民主发展的选举路径.” 『背景与分析(特刊)』 第32期.
<http://www.aisixiang.com/data/29255.html> (검색일: 2017. 1. 27)
- 林尚立(린상리). 2003. “对中国民主政治发展的一种思考” 『学术月刊』 2003年4期. pp.19-25.
- 马宝成(마바오청). 2016. “中国式民主的五大特征”. 『人民网』. 2016年7月25日.

<http://theory.people.com.cn/n1/2016/0725/c148980-28581395.html>

(검색일 2017. 1. 4)

闵琦(민치). 1989. 『中国政治文化』. 昆明: 云南人民出版社.

本刊评论员(번칸핑룬위엔). 1987. “坚持人民民主专政” 『红旗』 1987年2月. pp.8-9.

本社(编)(번셔(비엔)). 1984. 『大学生谈中国社会主义』. 长春: 吉林人民出版社.

编写组(비엔세주). 1987. 『政治体制改革资料先编』. 南京: 南京大学出版社.

沙莲香 等(샤롄샹 텡). 2004. 『中国社会心理分析』. 沈阳: 辽宁教育出版社.

萧功秦(샤오궁친). 2001. 『与政治浪漫主义告别』. 武汉: 湖北教育出版社.

谢韬(셰타오). 2007. “民主社会主义模式与中国前途” 『炎黄春秋』 2007年2期. pp.1-8.

辛识平(신스핑). 2017. “中国式民主的本质、特质、品质”. 『新华网』 2017年3月8日.

杨曦光(杨小凯)(양시광(양샤오카이)). 1968. “中國向何處去?”

<http://www.boxun.com/hero/yangxk> (검색일 2015. 11. 1)

阎健 编(앤지엔 비엔). 2006. 『民主是个好东西: 俞可平访谈录』.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王伟光(왕웨이광). 2014. “坚持人民民主专政，并不输理”， 『红旗文稿』 2014年18期.

http://www.qstheory.cn/dukan/hqwg/2014-09/23/c_1112586776.htm

(검색일 2017.5. 9)

王茂华(왕마오화). 1991. 『民主探要』.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 1993. “建设中国特色的社会主义民主政治” 『求是』 1993年6月.

王紹光(왕샤오광). 2008. 『民主四讲』. 北京: 三联书店.

王福春·呈晓健(왕푸춘·청샤오지엔). 1989. “关于北京大学生民主意识的调查报告” 『政治学研究』 1989年1期. pp.27-28.

温家宝(원자바오). 2007. “关于社会主义初级阶段的历史任务和我国对外

- 政策的几个问题”『中国共产党新闻网』2007年2月26日. <http://cpc.people.com.cn/GB/64093/64094/5418168.html> (검색일 : 2017. 1.12)
- 吴茜(우치앤). 2010. “中国特色人民民主:人民当家作主的权力与权利相统一”『党的文献』2010年2期. pp.88-92.
- 张明澍(장밍슈). 2013. 『中国人想要什么样民主:中国"政治人"(2012)』.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江泽民(장쩌민). 1990. “关于党的新闻工作的几个问题.” 『人民日报』1990年3月2日.
- . 1992. “加快改革开放和现代化建设步伐夺取有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的更大胜利--在中国共产党第14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1992年10月12日).” 『中国共产党历次全国代表大会数据库』<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7/65446/4526308.html> (검색일 2016. 6. 1)
- . 1997. “高举邓小平理论伟大旗帜,把建设有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全面推向二十一世纪--在中国共产党第十五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中国共产党历次全国代表大会数据库』<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8/65445/4526285.html> (검색일: 2016. 7. 1)
- 郑谦 外(정치앤 와이). 1988. 『当代中国政治体制发展概要』. 北京:中共党史资料出版社.
- 朱学勤(주시에친). 2003. 『道德理想国的复灭-从卢梭到罗伯斯庇尔』. 上海: 上海三联书店.
- 中共中央毛泽东主席著作编辑出版委员会(编)(중공중앙마오쩌둥주시주즈오비앤지추반웨이위엔후이(비앤)). 1977. 『毛泽东选集』第五卷.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献编辑委员会(编)(중공중앙원시앤비앤지웨이위엔후이(비앤)). 1991. 『毛泽东选集』第四卷.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献委员会(编).(중공중앙원시앤웨이위엔후이(비앤)). 1994. 『邓

- 小平文选』2卷.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献委员会(编). (중공중앙원시앤웨이위앤후이(비앤)). 1994. 『邓小平文选』3卷. 北京: 人民出版社.
- 中国社会科学院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系研究中心(중궈셔후이커세위앤중궈터셔셔후이주의리론티시앤지우중신). 2014. “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政治具有强大生命力”, 本书编写组(编). 『论中国民主』. 北京: 学习出版社. pp.29-38.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중화런민궁허구어구어우위앤신원반궁스). 2005. “中国的民主政治建设” <http://www.scio.gov.cn/zfbps/ndhf/2005/Document/307899/307899.htm> (검색일: 2016. 5. 5)
- 蔡定剑(차이딩지앤). 2002. 『中国选举状况的报告』. 北京: 法律出版社.
- 陈尔晋(陈汉潮)(천얼진). 1974-1976年初. “特权论” 『博讯新闻网』. <http://www.boxun.com/hero/chenyc> (검색일 2016. 10. 2)
- 陈延政(천연정). 1982. “民主集中制是一对"矛盾"吗?” 『社会科学(上海)』第8期.
- 词典编词组(즈댄비앤즈주). 1985. 『简明政治学词典』. 长春: 吉林人民出版社.
- 迟福林·黄海(编)((즈푸린·황하이(비앤)). 1987. 『邓小平政治体制改革思想研究』. 北京: 春秋出版社.
- 秋石(치우스). 2010. “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政治的制度优势与基本特征——划清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同西方资本主义民主的界限” 『求是』2010年18期』
http://www.qstheory.cn/zxdk/2010/201018/201009/t20100911_46966.htm
(검색일 2016. 8. 5)
- 康晓光(강샤오광). 2003. “未来10年中国政治发展策略探讨.” 『战略与管理』2003年1期. pp75-81.
- 潘维(판웨이). 2003. 『法治与‘民主迷信’』. 香港: 香港社会科学出版社有限公司.

- 房宁(팡닝). 1995. 『现代资本主义发展引论』. 北京: 首都师范大学出版社.
- _____. 2007. “民主, 走中国自己的路” 『新华网』 2007年7月17日.
http://news.xinhuanet.com/theory/2007-07/17/content_6386703.htm
(검색일 2016.1.5)
- _____. 2009a. “民主还是中国的好” 『红旗文稿』 2009年第2期. pp6-11.
- _____. 2009b. “中国民主政治建设和政治体制改革的八个观点” 『红旗文稿』 2009年 第21期. pp.19-21.
- 何增科(허정크). 2008. “民主化: 政治发展的中国模式与道路.” 俞可平(编). 『中国学者论民主与法治』. 重庆: 重庆出版社. pp81-84.
- 环球舆情调查中心(환치우위칭다오차중신). 2011. “公众对民主的认知现状调查报告.” 『环球网』 2011年12月1日. <http://opinion.huanqiu.com/1152/2011-12/2225584.html> (검색일 2016. 2. 1).
- 胡伟(후웨이). 1999. “党内民主与政治发展: 开发中国民主化的体制内资源.” 『复旦学报』(社会科学版) 1999年1期. pp.1-11.
- 黄卫平(主编)(황웨이핑(주비엔). 2000. 『中国基层民主发展的最新突破』.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爱思想网』, 2015/12/10. “刘瑜: 中国人想要什么样的民主?”.
<http://www.jiupaicn.com/2015/1210/17088.html>(검색일 2016. 7. 3)
- 『新华网』. 2014/09/05. “习近平: 设计和发展国家政治制度要从国情出发从实际出发”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9/05/c_1112384483.htm(검색일 2017. 1. 2)
- 『美国之音(VOA)』. 2014/09/06. “习近平称只能行中国式民主道路” <http://www.voachinese.com/a/xi-insists-in-chinese-style-democracy-20140906/2440754.html>(검색일 2017. 1. 2)
- 『新华网』. 2014/09/21. “习近平: 在庆祝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成立65周年大会上的讲话”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9/21/c_1112564804.htm
(검색일 2017. 1. 2)

『人民网』. 2007/10/15.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七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全文)”

<http://cpc.people.com.cn/GB/104019/104099/6429414.html>(검색일 2016. 8. 15)

『人民网』. 2012/11/18.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http://cpc.people.com.cn/n/2012/1118/c64094-19612151-1.html>(검색일 2016. 9. 10)

『人民网』. 2017/03/27. “民主的思想谱系”

<http://theory.people.com.cn/n1/2017/0327/c40531-29171430.html>
(검색일 2017. 5. 8)

『墙外楼-网络热门话题追踪』. 2016/06/02. “论美国不适合实行民主制度”

https://commondatastorage.googleapis.com/letscorp_archive/archives/105945(검색일 2017. 2. 8)

『人民网-理论频道』. 2016/08/19. “漫说中国式民主”

<http://theory.people.com.cn/n1/2016/0819/c148980-28649389.html>
(검색일 2016. 11.1)

『人民网党史百科』“社会主义民主”

<http://dangshi.people.com.cn/GB/165617/166499/9981540.htm>(검색일 2016. 1. 2)

『光明日报』. 1988/11/21. “社会主义新概念的核心是什么-当代世界社会主义理论与改革研讨会提出新观点”

『大公报』. 1986/09/18. “蘇紹智論政治改革首要打破政治教條-政治應民主化,黨內應允許自由討論”

『中国人大网』. 2010/04/08. “人民当家作主是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的本质和核心——论自觉划清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同西方资本主义民主的界限”

“关于建国以来党的若干历史问题的决议”(1981年6月27日中国共产党第十一届中央委员会第六次全体会议通过)『中国共产党新闻网』

- <http://cpc.people.com.cn/GB/64162/71380/71387/71588/4854598.html>
(검색일 2016. 4. 5)
- 『新华网』. 2007/10/24.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七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http://news.xinhuanet.com/18cpcnc/2012-11/17/c_113711665.htm
(검색일 2017. 3. 4)
- 『中国共产党新闻网』. 2013/11/16.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http://cpc.people.com.cn/n/2013/1116/c64094-23561785.html>(검색일 2017. 1. 15)
- 『中国共产党新闻网』. 2009/09/28. “中共中央关于加强和改进新形势下党的建设若干重大问题的决定” <http://cpc.people.com.cn/GB/64162/71380/182420/12300687.html>(검색일 2016. 9. 9)
- Benton, Gregor and Alan Hunter. 1995. *Wild Lily, Prairie Fire: China's Road to Democracy, Yan'an to Tian'anmen, 1942-1989*.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ry, John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 Bing, NGEOW Chow. 2014. “Discourses on Chinese-Style Democracy in China”.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12(3): 94-114.
- Goldman, Merle. 1994. *Sowing the Seeds of Democracy in China: Political Reform in the Deng Xiaoping Era*.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 Guo, Dingping. 2004. “The Potentialities and Limitations for Chinese Democracy.” *The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44(5): 185-200.
- Mandel, Ernest. 1985.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Marxism's Theory of Socialist Democracy.” *Ernest Mandel Internet Archive*.

<http://www.ernestmandel.org/en/works/txt/1985/1985.htm>(검색일 2017. 6. 1)

Nathan, Andrew. J. 1990. *China's Crisis: Dilemmas of Reform and Prospects for Democrac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Roper, Brian S. 2012 "Classical Marxism, Socialist Democracy and Stalinist Dictatorship". *Brian S. Roper's Blog*, Monday, 15 October 2012. <http://briansroper.blogspot.kr/2012/10/classical-marxism-socialist-democracy.html>(검색일 2017. 6. 1)

Time. 1980/11/10. "What Students Believe In".

Abstract

Chinese Style Democracy's Formation and the Meaning: Between the Acceptance and Distortion of Socialist Democracy

LEE Hong Gyoo

Department of Eastasia, Dongseo University

The goal of ‘Chinese style democracy’, China’s state identity in political aspect, is to realize ‘socialist democracy’. ‘Socialist democracy’ means the democracy in socialist system, social power have kept asking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ist democracy’ since the PRC’s establishment. Through the voice, they had clamoured for the more fast democratization with open mind about Western democracy. On the other hand, the CCP accepted but transformed ‘socialist democracy’ into ‘socialist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hich was extended to the concept of ‘Chinese style democracy’ at last. This transformation and extension of concept also approaches to the distortion. But it is clear that ‘Chinese style democracy’ has consolidated its position as political state identity on the grounds of the worldwide crisis of democracy, the increased confidence of CCP from rise of China and the political conservative shift since Xi Jinping regime.

Keywords: China, State Identity, Chinese Style Democracy, Socialist Democracy, Socialist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